한국어의 용언 반복 구문(ECHOED VERB CONSTRUCTIONS): 용언의 가시적 이동을 위한 또 하나의 근거

최기용
광운대학교
choi0324@daisy.kwangwoon.ac.kr

요 약

1. 머리말

한국어 용언의 활용형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용언의 어간 및 활용어미 등이 독립적 통사 핵을 이룬다고 보고[1] 이들 핵의 가시적 혹은 외현적(covert) 이동을 통해 활용형이 형성된다는 입장이 있다(H.-S. Han(1987), H.-S. Choe(1988), J.-M. Yoon(1990), Otani and Whitman(1991), J.-S. Lee(1995, 1996), Koizumi(1995) 등). 이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름이 가능하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분석이 핵-이동이라는 통사적 절차를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통사부 분석"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한편 이와 같은 통사적 처리에 반대하여 활용형 전체가 어휘부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어휘부 분석"이라 부를 수 있을 터인데, 이 견해의 주요 옹호자로 Sells(1995) 및 Yu and Sells(1995)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 최소주의에 입각한 J. Cho(1996) 및 S.-W. Kim(1998) 등도 이런 입장을 택하고 있다.

마지막 입장은 "음운부 분석"이라 부를 수 있을 터인데, 이 입장은 용언의 어간 및 활용어미들이 독립적 핵을 이루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는 "통사부 분석"과 같으나, 활

[1] 활용어미 특히 선어말어미 중 어느 것을 통사적 핵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한학성(1993), H.-S. Han(1987), H.-S. Choe(1988), H.-D. Ahn and H.-J. Yoon(1989), J.-M. Yoon(1990, 1996), J. Yoon(1991, 1993, 1994), J.-Y. Yoon(1992) 등을 참조할 것. 뒤에서 논의될 용언 반복 구문의 복사 양상은 선어말어미 중 '-시'와 '-았'만이 통사적 핵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용형이 핵의 가시적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음운부에서 merger와 같은 절차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 다르며 주요 옹호자로는 J.-M. Yoon(1996) 등을 들 수 있다.[2]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용언의 어간 및 특정한 선어말어미가 두 번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이른바 용언 반복 구문(Echoed Verb Constructions)이[3] 통사부 분석을 위한 중요한 긍정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4] 또한 용언 반복 구문에서의 복사의 양상이 이동의 복사 이론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됨을 보일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2절에서는 용언 반복 구문에서 반복되는 용언 중 하나가 허사임을 보이는 한편 용언의 어간 및 활용어미의 복사의 양상을 정리한다. 이어 3절에서는 이러한 복사의 양상에 대해 핵-이동에 입각한 분석을 시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동의 복사 이론 및 경제성 개념 그리고 X0 이동으로 인해 생기는 사슬의 구성원들이 하나 이상 음성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Nunes(1999)의 제안에 의해 용언 반복 구문에서의 복사의 양상들이 적절히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이런 분석이 갖는 몇 가지 의의를 정리한다.

2. 용언 반복 구문

한국어에서 한 문장에는 대개 한 용언의 어간이 한번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나, 아래와 같이 한 용언의 어간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구문이 있다.[5]

(1) 가. 철수가 영이를 만나기는 만났다.
나. 영이가 예쁘기는 예쁘다.

그러나 이런 특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문이 그동안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2] 이 외에 J. Yoon(1993, 1994)은 활용형이 phrasal affixation에 의해 형성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phrasal affixation에 대한 최소주의적 분석에 대해서는 J. Yoon(1996)을 참조할 것.

[3] Echoed Verb Construction이라는 이름은 Y. No(1988)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이름으로 "용언 반복 구문"을 사용하기로 한다.

[4] 고로 위에 언급된 각 분석의 찬반 양론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앞으로의 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5] 동일한 용언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한국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Koopman(1983), Larson and Lefevre(1991), Dekydtsoptter(1992) 등이 Haitian Creole, Vata 등의 언어에서도 용언 반복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단 J.-S. Lee(1995)의 제안을 따라 이들 언어에서의 용언 반복 현상이 한국어의 용언 반복 구문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 그는 이들 언어가 보이는 용언의 반복이 용언 반복 구문보다는 다음과 같은 술부 분열 구문(Predicate Cleft Constructions)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았다.

(i) 가. 걷기는 철수가 걸었다.
나. 먹기는 영이가 빵을 먹었다

술부 분열 구문과 용언 반복 구문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 언어에서의 용언 반복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앞으로의 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못했던 것 같다. 단지 이 구문이 가지는 기본 성격에 대한 주요 관찰로는 이 구문에 Echoed Verb construction이라는 이름을 붙인 Y. No(1988)가 제시한 다음의 다섯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며,[6] 이 구문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으로는 M.-Y. Kang(1988:39-40)의 것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7]

E1. The verb base occurs twice, separated by a delimiter

E2. The first occurrence of the verb base is followed by ki, which in turn is followed by a delimiter.

E3. The first occurrence of the verb base is not fully inflected.

E4. The second occurrence of the verb base occurs with inflectional affixes.

E5. The two occurrences of the verb base are morpheme by morpheme identical modulo inflection.

본 절에서는 위 성질과 관련하여 두 가지 보완 작업을 한다. 먼저 E1에 암시되어 있듯이 이 구문에 나타나는 두 용언 어간 중 하나가 허사임을 보이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한편 E3에 의하면 앞에 나타나는 용언은 완전한 활용형을 갖추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세부적 양상을 한국어에 대한 전통문법적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검토할 것이다.

2.1. 반복 용언 중 하나는 허사이다

반복 용언 중 하나가 허사임을 보이는 첫 번째 근거로 용언 반복 구문 문장의 진리 조건이 no용언 반복 구문 문장에 대응하여 용언이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의 진리 조건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8]예를 들어 (1)의 문장들이 참인 상황 하에서는 언제든지 아래 (2)의 문장들도 참이 되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2) 가. 철수가 영이를 만났다.

나. 영이가 예쁘다.

[6] 그 외에 '-기' 뒤에 올 수 있는 한정사가 '-는' 또는 '-야'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D.-W. Yang(1976:209) 및 M.-Y. Kang(1988:143)의 관찰 그리고 '-기' 뒤에 오는 한정사 '-는'의 의미적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M.-Y. Kang(1988:144)의 관찰 등을 들 수 있다.

[7] 물론 용언 반복 구문과 구문 상 비슷한 모양을 가지는 다른 구문들, 예를 들어 동사구 초점 구문(VP-focus Constructions), 장형 부정 구문, 술부 분열 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용언 반복 구문을 언급한 연구들은 꽤 있다. H.-B. Lee(1970), D.-W. Yang(1976), J.-S. Lee(1995), Sohn, Hong and Hong(1996) 등을 참조할 것.

[8] 어느 쪽이 허사냐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사실 나중에 소개할 복사 이론에 의하면 어느 쪽이 허사냐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용언 모두가 허사가 아니라면 의미역 기준에 따라 각각이 갖고 있는 모든 의미역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 (3)에서 보듯이 그런 문장은 모두 안 좋다. 그리고 오히려 (1)에서와 같이 해당 논항이 한 번만 실현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어느 한 쪽 용언이 의미역이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반복되는 용언 중 하나가 허사임을 의미한다.

(3) 가. *철수가 영이를 만나기는 철수가 영이를 만났다.
나. *영이가 예쁘기는 영이가 예쁘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 중 어느 하나가 아무런 뜻이 없다는 것이 용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Y. No(1988)가 지적하였듯이 용언 반복 구문에서 부정어가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데, 반복된 부정어 중 하나는 부정의 뜻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가. 철수가 영이를 안 만나기는 안 만났다.
나. 영이가 안 예쁘기는 안 예쁘다.

즉 다음 예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부정어가 두 번 나타나면 이중 부정이라 하여 긍정의 의미를 갖는 것이 보통인데, (4)는 긍정을 뜻하지 못하며 부정을 뜻할 뿐이다.

(5) 가. 철수가 영이를 안 만나지 않았다.
나. 철수가 영이를 안 만난 것이 아니다.

이상의 예들은 용언 반복 구문에 나타나는 두 용언을 모두 실사로 보는 분석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복사이며 고로 그 중 하나는 허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혹은 달리 말하자면 음성적으로 반복되는 두 용언이 의미적으로는 하나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2. 복사의 양상: 활용어미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1)에서 용언의 어간이 복사되는 것을 보았다.[9] 그러면 어간 뒤에 오는 요소들인 활용어미들의 경우는 어떤가? 전통 문법에서 얘기되는 활용어미는 크게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뉘는데(이익섭/채완(1999) 참조), 이들의 복사 양상을 어간에 가까운 순서대로 보기로 하자. 먼저 선어말어미. 전통문법에서 확인되는 선어말어미의 목록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는 모든 선어말어미를 대상으로 그 복사의 양상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9] Y. No(1988)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아래 예는 파생어미가 반드시 복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i) 가. 범인이 잡히기는 잡혔다.
나. *범인이 잡히기는 잡았다.
다. *범인이 잡기는 잡히었다.

(6) 가. 박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셨다. '-시-'
나. 철수가 영이를 만났다. '-았-'
다. 철수가 영이를 자주 만난다. '-는/ㄴ-'
라. 철수가 영이를 자주 만나더라. '-더-'
마. 내가 영이를 만나겠다. '-겠-'
바. 내가 영이를 만나리다. '-리-'

먼저 어간에 가장 가까운 일치소(Agr) '-시'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10]

(7) 가. 박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시기는 만나셨다.
나. 박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기는 만나셨다.
나. *박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시기는 만났다.

(7)의 양상이 말해주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먼저 주목할 점은 (7나)가 허용된다는 것으로, 이는 일단 활용어미의 복사의 양상이 파생 접사 혹은 부정어의 그것과 다름을 보여준다.[11] 즉 앞에서 보았듯이 파생접사나 부정의 경우는 복사되는 성분이 어느 한 쪽에 안 나타나면 비문법적이었으나, (7나)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어 주목할 점은 (7다)가 비문법적이라는 점으로 복사의 양상과 관련하여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8) '-기는' 왼쪽의 형태가 그대로 복사되어야 한다.

즉 (7다)는 '-기는' 왼쪽의 형태 중 '-시'가 복사되지 않아 비문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편 마찬가지의 양상이 '-시' 뒤에 오는 시제소(Tense) '-았'에서도 관찰된다. 즉 파생접사나 부정소와는 달리 시제소도 반드시 복사되지 않아도 되며 그리고 (8)을 준수한다.

(9) 가. 철수가 영이를 만났기는 만났다.
나. 철수가 영이를 만나기는 만났다.
다. *철수가 영이를 만났기는 만나다.

지금까지는 (7)과 (9)에서처럼 일치소와 시제소의 개별적인 복사의 양상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일치소와 시제소가 함께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경우의 복사의 양상이 어떤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이 그 결과이다.

(10) 가. ?박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셨기는 만나셨다.
나. 박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시기는 만나셨다.

[10] 일치소의 또 다른 변이형으로 ϕ가 있다. 그러나 이 변이형으로는 복사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고로 일치소가 복사되었는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시'를 이용한다.

[11] 이는 굴절과 파생간의 또 다른 차이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박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났기는 만나셨다.

라. 박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기는 만나셨다.

(11) 가. *박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셨기는 만나다.

나. *박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셨기는 만나시다.

다. *박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셨기는 만났다.

먼저 (11)은 (7다, 9다)와 마찬가지의 양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기는' 앞에 있던 형이 그대로 복사되지 않았으며 고로 (8)을 어겨 비문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의 예에서 주목할 것은 (10다)이다. (10다)는 표면적으로는 (8)을 준수하고 있다. 즉 '-기는' 앞의 형태인 '만났-'이 오른쪽에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문법적인 다른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즉 문법적인 경우들에서는 '-기는' 앞의 표현인 X가 복사되고 X 뒤에 한국어의 활용형의 구조상 X 뒤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활용어미가 붙은 데 반해, (10다)의 경우는 X의 내부에 활용어미가 추가된 양상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12) 복사형 내부에 활용어미가 끼여들 수 없다.

이제 '-시-'와 '-았-' 뒤에 오는 선어말어미를 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시-' 혹은 '-았'이 '-기는' 앞에 오는 경우 이들이 복사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시-'와 '-았-' 외의 선어말어미들은 '-시-'와 '-았-'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다음 예문들은 이들이 복사되지 못함을 보여주지 못하며 이는 (14)로 정리될 수 있다.

(13) 가. *철수가 영이를 만난기는 만난다.

나. *철수가 영이를 만나더기는 만나더라.

다. *내가 영이를 만나겠기는 만나겠다.

라. *내가 영이를 만나리기는 만나리다.

(14) 선어말어미 중 '-시-'와 '-았-'만이 복사의 대상이 되며, 나머지 선어말어미들은 복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한편 '-시-'와 '-았-'을 제외한 이들 선어말어미들의 이런 양상은 사실 어말어미들의 양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말어미의 경우도 복사가 허용되지 않는데, 다음 예들이 이를 보여준다(전통문법에서 어말어미로 규정된 모든 어미들(이익섭/채완(1999:222) 참조), 즉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누어서 예문을 제시했다).

종결어미의 경우

(15) 가. *철수가 영이를 만나다기는 만났다.

나. *철수가 영이를 만났다기는 만났다.

(16) 가. *철수가 영이를 만나니기는 만났니?

나. *철수가 영이를 만났니기는 만났니?

연결어미의 경우

(17) 가. 철수가 영화를 보며 영이 생각을 했다.
나. *철수가 영화를 보며기는 보며 영이 생각을 했다.

(18) 가. 철수가 영화를 보고 숙제를 했다.
나. *철수가 영화를 보고기는 보고 숙제를 했다.

전성어미의 경우

(19) 가. 철수가 영이에게 사과를 함이 맞다.
나. *철수가 영이에게 사과를 함기는 함이 맞다.

(20) 가. 책을 읽는 철수
나. *책을 읽는기는 읽는 철수

(21) 가. 철수는 아이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었다.
나. *철수는 아이가 일어나도록기는 일어나도록 도와 주었다.

한편 어말어미의 복사가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위의 예에서 왼편에 나타나는 어말어미 뒤에 모두 '-기는'이 있다. 혹자는 선어말어미의 복사에서 '-기는'이 갖는 역할이 단어의 끝을 맺어준다는 점을 들어 같은 역할을 하는 어말어미의 복사에서는 '-기는'이 필요 없으며 (15, 16) 및 (17-21나)의 비문법성은 필요 없는 '-기는'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예들은 '-기는'이 없는 경우의 복사도 비문법적임을, 즉 어말어미의 복사가 그 경우에도 여전히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22) 가. *철수가 영이를 만났다 만났다.
나. *철수가 영이를 만났니 만났니?
다. *철수가 영화를 보며 보며 영이 생각을 했다.
라. *철수가 영화를 보고 보고 숙제를 했다.
마. *철수가 영이에게 사과를 함이 함이 맞다.
바. *책을 읽는 읽는 철수
사. *철수는 아이가 일어나도록 일어나도록 도와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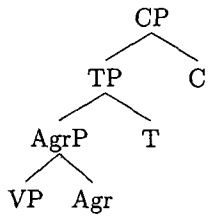
이상 지금까지의 양상을 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3) 가. '-기는' 왼쪽의 형태가 그대로 복사되어야 한다.
나. 복사형 내부에 활용어미가 끼여들지 못한다.
다. 선어말어미 중 '-시', '-았' 만이 복사의 대상이 된다.
라. 어말어미의 복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용언 반복 구문의 분석: 용언의 가시적 이동

지금까지 우리는 용언 반복 구문에서 단순히 용언 어간만이 복사되는 것이 아니고 선어말어미 중 일치소 그리고 시제소라 불리는 것들도 복사될 수 있음을 보았다. 본 절에서는 "통사부 분석" 및 이동의 복사 이론에 입각하여 이런 복사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먼저 Split Infl 가설에 입각하여(Pollock(1989), Chomsky(1991), H.-D. Ahn and H.-J. Yoon(1989), J.-Y. Yoon(1992), 한학성(1993) 등) 한국어 문장의 기본 구조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24)



이 구조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용언의 어간 및 일치소, 시제소, 보문자와 같은 기능범주들은 독립적인 핵을 이룬다. 고로 이들이 함께 붙어서 나타나는 표면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통사부 분석"에 의하면 그 절차가 바로 핵-이동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일련의 핵-이동이 적용되어야 한다.

(25) 가. V 어간이 Agr로 가시적 이동을 하여 $[_{Agr}$ V-Agr]을 만든다.
나. $[_{Agr}$ V-Agr]이 다시 T로 이동하여 $[_{T}\ [_{Agr}$ V-Agr] -T]을 만든다.
다. $[_{T}\ [_{Agr}$ V-Agr] -T]가 마지막으로 C로 이동하여 $[_{C}\ [_{T}\ [_{Agr}$ V-Agr] -T] -C]를 만든다.

그리고 이런 이동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슬이 형성된다. [12]

(26) 가. (V2(-Agr), V1)
나. (V-Agr2(-T), V-Agr1)
다. (V-Agr-T2(-C), V-Agr-T1)

한편 흔적 이론에 의하면, 사슬의 꼬리는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며, 머리만이 음성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고로 이 이론에 의하면, (26)과 같이 일련의 핵-이동에 의해 사슬이 형성되는 경우, 음성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26다)의 V-Agr-T(-C)이며 이것이 C와 함께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바로 (1)의 용언 반복 구문에 대응하여 하나의 서술어만이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27) 가. 철수가 영이를 만났다.
나. 영이가 예쁘다.

[12] 사슬의 왼쪽에 (-X)를 덧붙인 것은 이 쪽이 사슬의 머리임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흔적 이론에서는 용언 반복 구문에서의 복사의 양상이 설명되기가 어렵다. 왜냐면 사슬의 머리를 제외한 다른 구성원의 음성적 실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이다. [13] 이에 반해 최소주의 하의 이동의 복사 이론은 용언 반복 구문이 보이는 복사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복사 이론에 의하면 통사부에서 어떤 성분이 이동할 경우 이동의 매 위치에 이동 성분의 복사가 남게 되는데, 용언 반복 구문에서의 복사의 양상은 바로 이런 가능성 중 일부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복사 이론식 설명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첫 번째 문제로 Nunes(1999:219)가 사슬의 음성적 실현과 관련해 제시한 다음과 같은 일반화를 들 수 있다.

(28) 가. A nontrivial chain cannot have all of its links phonetically realized.

나. Traces and not head of chains are the links that are deleted.

이 일반화는 다음과 같은 예문이 보여주는데, 이 일반화가 맞다면 용언 반복 구문에서의 복사의 양상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29) 가. *John was kissed John

나. *was kissed John

다. John was kissed.

(30) 가. *what did John see what

나. *did John see what

다. What did John see?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위 일반화에 예외가 있으며 그 예외가 모두 핵-이동에 의해 생기는 사슬에서 관찰된다는 Nunes(1999)의 제안이다.[14] 즉 다음의 예들에서는 사슬의 두 구성원이 음성적으로 실현되었는데,[15] 문제의 표현이 모두 X^0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13] 이런 점에서 용언 반복 구문에서의 용언 복사 양상에 대한 M.-Y. Kang(1988:40)의 다음 제안은 흥미롭다.

At S-structure, the content verb may move to the dummy verb position, leaving a copy of it. Let us call this copy a resumptive verb, in the sense of Koopman (1984). That is, this resumptive verb is essentially a spell-out of the trace of the content verb

이 제안의 기본 생각은 이동의 복사 이론과 같다고 본다. 다만 이 제안에서 부족한 점은 일치소 및 시제소의 복사의 양상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14] Nunes(1999)에 의하면 X^0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X^0이동에 의해 형성된 부가구조를 phonological word로 바꾸는 절차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 고로 이에 의하면 같은 clitic이더라도 이런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 clictic의 경우는 복사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Nunes(1999:235-236)를 참조할 것.

[15] 이와 같이 X^0부가 구조 내의 link가 어떻게 (28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Nunes(1999:233-235)를 참조할 것. 본 연구도 그의 제안을 그대로 따른다.

Argentinean Spanish

(31) vamonos a divorciarnos
go-1PL-us/CL to divorce-INF-us/CL
'we are going to divorce.'

Romani

(32) kas misline kas o Dem ri dikhl
whom you-think whom Demir saw
'who do you think Demir saw'

(31)은 enclisis를 갖고 있고 (32)는 의문사를 갖고 있는데, 특히 (32)가 full wh-phrase가 복사된 아래 문장과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kas를 X^0로 보고 있다.

Romani

(33) *save have mislinea save have o Dem ri dikhl
which boy you-think which boy Demir saw
'which boy do you think Demir saw'

고로 위 일반화의 예외에 대한 Nunes(1999)의 제안이 맞다면, 용언 반복 구문의 경우에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용언 반복 구문이 보이는 복사도 핵-이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26)를 다시 보자. (26)은 연속적인 핵-이동의 결과 모두 세 종류의 사슬이 생겼음을 보인다. 먼저 (26가)에서 문제가 되는 사슬의 구성원은 V1과 V2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두 구성원이 모두 음성적으로 실현될 수 없지만, V가 Agr로 이동하여 V-Agr 복합체를 구성하고 이것이 Nunes의 제안대로 phonological word로 바뀌면, 그 내부에 오는 V(즉 V2)는 Kayne(1994)의 어순대응공리(Linear Correspondence Axiom)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V1과 V2의 음성적 실현이 모두 허용된다.

이어 V-Agr이 T로 이동하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도 V의 이동과 마찬가지로 V-Agr2는 어순대응공리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음성적으로 실현이 되어도 문제가 없으며, 고로 V-Agr1과 함께 음성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는 마지막 (26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24)의 구조에서 모든 통사적 핵들이 음성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되는데 그 결과는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비문법적이다.[16]

(34) *박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기는 만나시기는 만나셨기는 만나셨다.

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의 설명을 위해서 먼저 '-기는'이 삽입되기 전의 상태인 (35)와 (35)에서 '만나', '만나시', '만나셨'이 생략된 (36)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35) *박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 만나시 만나셨 만나셨다.

[16] '-기는'의 첨가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한다.

(36) 박 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셨다.

이동의 복사 이론 및 사슬의 음성적 실현에 대한 Nunes(1999)의 제안에 의하면, (35)는 허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문법적인 것은 음성적으로 실현된 사슬의 구성원들인 '만나', '만나시', '만나셨'이 한국어에서 구속형태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기존 연구에 구속형태소로 남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여러 종류의 제안들이 있었는데(M.-Y. Kang(1988), Lasnik(1981), Baker(1988) 등), (35)는 이를 어겨 비문법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그런 문제가 되는 성분들이 음성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은 (36)은 좋으므로 [구속] 자질을 PF 상의 해석불가능(uninterpretable) 자질로 가정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안한다.

(37) PF 층위에서 해석불가능 자질을 가지는 어휘는 삭제하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37)이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인데, 실제로 이와 유사한 규칙이 아래와 같은 영어의 pseudo-gapping 구문을 다룬 Lasnik(1995:151)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

(38) Mary hasn't dated Bill, but she has Harry

Lasnik에 의하면 (39)에서 보듯이 동사가 가시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 남게 되면 비문법적인데, 이는 동사가 가지는 강 자질(strong feature)이 점검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

(39) *She has Harry dated.

여기서 Lasnik이 주목하는 것은 (39)에서 문제가 되는 dated를 생략한 (38)이 문법적이라는 사실인데, 이를 위해 동사의 강 자질을 생략하여 문제의 도출을 구하는 다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Then we correctly derive the result that deletion of (a category containing) an item with an unchecked strong feature salvages the derivation. (Lasnik(1995:151))

한편 (36)과 함께 아래의 (40)의 문장들이 가능하다 함은 한국어에서 구속으로 남게 되는 형태소를 가지는 도출을 구하는 방법으로 문제의 형태소를 생략하는 방법 외에 '-기'를 삽입하는 방법이 사용됨을 보여준다.[17]

[17] 다음 예는 '-기'만의 삽입으로는 도출을 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i) *박 선생님이 영이를 만나기 만나셨다.

즉 '-는'도 삽입되어야 한다. 왜 '-는'이 함께 삽입되어야 하는지는 미해결로 남겨둔다. 한 가지 가능한 방안은 '-기'가 명사라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명사이므로 격을 필요로 하고 그 격을 특수조사인 '-는'이 제공한다는 분석이다(H.-S. Han(1987:72) 참조). 이 경우 그럼 왜 다른 격조사, 즉 대격이나 주격이

(40) 가. 박 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기는 만나셨다.
나. 박 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시기는 만나셨다.
다. 박 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셨기는 만나셨다.

고로 다음과 같은 '-기' 삽입규칙을 제안한다.

(40) '-기' 삽입 규칙
좌초한 구속 술어를 닫기 위해 '-기'를 삽입하라.

이제 남는 문제는 (40)과 (34)의 대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리고 (40)의 각 예문들이 똑같이 문법적인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이다. 먼저 후자에 대한 답은 간단하리라고 본다. 이들이 같은 상태를 갖는 것은 각 문장에서 '-기' 삽입 규칙이 적용된 사슬의 구성원이 다를 뿐, 이 규칙의 적용 횟수는 같기 때문이다. 즉 (40가)의 경우에는 V에, (40나)의 경우에는 V-Agr에, (40다)의 경우는 V-Agr-T에 적용되었다. 전자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40)에서는 '-기' 삽입규칙이 한번 적용된 반면, (34)에서는 세 번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차이는 language-specific 규칙인 (41)의 적용에 경제성 원리가 적용됨을 보여준다.[18] 즉 cost-free가 아닌 규칙이 한 번 적용된 경우가 그 이상 적용되는 경우보다 경제적이므로 (34)가 배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은 '-기' 삽입 규칙이 두 번 적용된 다음 예들의 비문법성에서도 알 수 있다.

(42) 가. *박 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기는 만나시기는 만나셨다.
나. *박 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시기는 만나셨기는 만나셨다.
다. *박 선생님께서 영이를 만나기는 만나셨기는 만나셨다.

이상 복사 이론에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의 양상이 통사부 분석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보기로 하자. 먼저 (25가). 이 양상은 이동의 복사 이론에 의하면 간단히 설명된다. 즉 복사 이론은 말 그대로 이동시 원래 위치에 있던 것이 그대로 복사됨을 의미하므로 사슬의 전 구성원들은 항상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 고로 용언 반복 구문이 핵-이동에 의한 것이라면

불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ii) 가. *박 선생님이 영이를 만나기가 만나셨다.
나. *박 선생님이 영이를 만나기를 만나셨다.

이에 대해서는 '-기'가 삽입될 당시, 주격 및 대격을 부여하는 표현인 일치소 및 동사가 핵-이동 으로 형성되는 X^0-부가구조([$_C$ {$_T$ [$_{Agr}$ V-Agr]-T]-C])의 내부에 있어 '-기'를 성분-통어할 수 없 기 때문으로 본다. 한편 이 분석에 의하면 특수조사의 삽입은 격이론적 이유에서 일어나는 것이 된다. 격의 부여 혹은 격자질의 점검이 음운부에서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기' 삽입 규칙이 (37) 과 달리 음운부 규칙이기보다는 통사부 규칙임을 보여주는 한 근거로 해석된다.

[18] 이에 반해 보편적 규칙인 (37)은 적용 횟수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 보편 규칙의 적용에는 경제성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6)의 경우에는 세 번, (40)의 경우에는 두 번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동의 복사 이론에 의해 '-기는' 앞의 것이 사슬의 꼬리이므로 꼬리에 있는 것이 머리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데 (25가)가 바로 그런 내용이다. 이에 반해, (25나)는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25가)가 사슬의 꼬리에 있는 것만이 머리에 반드시 나타나야 함을 얘기한다면, (25나)는 사슬의 꼬리에 없는 것이 머리에 나타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어 (25라). 어말어미의 특성은 문장의 맨 끝에 오는 것이며, 고로 (24)의 구조에서 볼 때, 그들은 모두 C로 볼 수 있다. 그리고 C의 구조 상의 위치로 볼 때, C가 용언의 가시적 이동의 종점이므로 C가 다른 성분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없게 되며, 고로 어말어미의 복사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주목할 점은 (25다)도 같은 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일치소와 시제소를 제외한 선어말어미들을 독립적 통사적 핵으로 인정하지 않는 (24)와 같은 구조를 가정하면, 이들은 모두 구조 상 어말어미와 같은 C에 있게 되며 고로 이들도 복사될 수 없다.

4. 결론

한국어의 용언 반복 구문이 보이는 반복의 양상은 어느 한쪽이 허사라는 점에서 복사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고로 어떤 이론에서이든 이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24)와 같은 구조 그리고 핵-이동에 의해 활용형이 만들어진다고 볼 때,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즉 용언 반복 구문의 복사의 양상이 이동의 복사 이론의 자연스러운 한 결과임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사슬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음운부 분석 및 어휘부 분석에서는 복사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 현재 그런 절차가 어떤 구체적 성격을 띨지는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통사부 분석이 용언 반복 구문의 복사를 설명하기 위해 별도의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반해, 음운부 분석이나 어휘부 분석은 이동의 복사 이론 외에 별도의 도구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최소주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논의가 가지는 몇 가지 암시를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용언 반복 구문은 흔적 이론을 대체한 복사 이론이 옳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용언 반복 구문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은 일치소를 통사적 핵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일치소의 제거를 시도한 Chomsky(1995, 1999, 2000)의 입장과 상반된다. 그러나 '-시'의 반복의 양상이 '-았'의 반복의 양상과 같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의 반복의 양상을 설명함에 있어 이들을 통사적 핵으로 설정한 가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치소의 설정 없이 복사의 양상이 어떻게 설명될지는 의문이다.[19] 셋째, 용언 반복 구문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은 통사부에서의 핵-이동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사슬을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핵-이동이 통사부의 규칙이 아니고 음운부 규칙이며 사슬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Chomsky(1999, 2000)의 주장과 상반된다. 이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음운부에서의 이동도 사슬을 형

[19] 한국어에서 일치소가 핵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다른 논증으로는 한학성(1993) 및 K. Choi(2000) 등을 참조할 것.

성한다고 보고 문제의 이동이 음운부 이동이라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이 앞에서 언급한 음운부 분석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용언 반복 구문의 복사 양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동이 어느 부문의 규칙이냐이기보다는 이동이 사슬 형성 능력을 가진다는 점이다. 고로 핵-이동을 음운부의 규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통사부의 규칙으로 볼 것이냐의 논쟁에서 음운부에서 사슬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가 주요 논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참고문헌

이익섭/채완. 1999. 국어문법론 강의. 서울:학연사.

한학성. 1993. "한국어의 AgrP와 NegP," 언어 18:437-461.

Ahn, Hee-Don, and Hang-Jin Yoon. 1989. Functional categories in Korean. I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3, 79-88. Department of Linguistics,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

Baker, Mark. 1988. Incorpor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o, JunMo. 1996. Checking theory and Korean coordinate structure. In Morphosyntax in generative grammar, eds. Hee-Don Ahn et al, 123-135. Seoul: Hankuk Publishing Co.

Choe, Hyun-Sook. 1988. Restructuring parameters and complex predicates-A transformational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Choi, Kiyong. 2000. Korean VP-focus constructions: Another case of base-adjunction of X0 to Y^0.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0:329-356.

Chomsky, Noam. 1991.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ed, Robert Freidin. Cambridge, Mass.: MIT Press.

Chomsky, Noam.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Chomsky, Noam. 1999. Derivation by phas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Cambridge, Mass. MIT.

Chomsky, Noam.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eds, Roger Marin, David Michaels, and Juan Uriagereka, 89-155. Cambridge, Mass.: MIT Press.

Dekydtspotter, Laurent. 1992. The syntax of predicate clefts. In NELS 22, 119-133. GLS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Han, Hak-Sung. 1987. The configur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Kang, Myung-Yoon. 1988. Topics in Korean syntax: Phrase structure, variable binding, and movement.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Kayne, Richard.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Kim, Sung-Woong. 1998. Verb raising and gapping 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8:3-24.

Koizumi, Masatoshi. 1995. Phrase structure in minimalist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Koopman, Hilda. 1983. The syntax of verbs. Dordrecht: Foris.

Larson, Richard, and Clarie Lefebvre. 1991. Predicate clefting in Haitian Creole. In NELS 21, 247-261. GLS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Lasnik, Howard. 1981. Restricting the theory of transformations: A case study. In Explanation in Linguistics, eds, Norbert Hornstein and David Lightfoot, 152-173. Longman, London.

Lasnik, Howard. 1995. A note on pseudogapping. In Papers on minimalist syntax: The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27, eds, Rob Pernsalfini and Hiroyuki Ura, 143-164.

Lee, Hong-Bae. 1970. On negation in Korean. Language Research 6.

Lee, Jeong-Shik. 1995. A study on predicate clefting.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5:531-584.

Lee, Jeong-Shik. 1996. Verbal morphology in Korean. In Morphosyntax in Generative Grammar, eds. Hee-Don Ahn et al, 287-298. Seoul: Hankuk Publishing Co.

No, Yongkyoon. 1988. Negative morphemes in Korean: Evidence for a derivational treatment. In ICKL.

Nunes, Jairo. 1999. Linearization of chains and phonetic realization of chain links. In Working minimalism, eds, Samuel David Epstein and Norbert Hornstein, 217-250. Cambridge, Mass.: MIT Press.

Otani, Kazuyo, and John Whitman. 1991. V-raising and VP-ellipsis. Linguistic Inquiry 22:345-358.

Pollock, Jean-Yves. 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365-424.

Sells, Peter 1995. Korean and Japanese morphology from a lexical perspective. Linguistic Inquiry 26:277-325.

Sohn, Y.-S., Y-A. Hong, and K.-S. Hong. 1996. Functional category IP in Korean revisited.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6:351-384.

Yang, Dong-Whee. 1976. Korean negation revisited. Linguistic Journal of Korea 1:183-217.

Yoon, James Hye-Suk. 1991. Inflectional structures in Korean and headedness. Studies in the Linguistic Sciences 21.2:179-192.

Yoon, James Hye-Suk 1993. Tense, coordination, and the clausal structure of English and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5.

Yoon, James Hye-Suk 1994. Korean verbal inflection and checking theory. In The Morphology-syntax connection: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2, 251-270.

Yoon, James Hye-Suk 1996. A syntactic account of category-changing phrasal morphology: Nominalizations in English and Korean. In Morphosyntax in Generative Grammar, eds. Hee-Don Ahn et al, 63-86. Seoul:Hankuk Publishing Co.

Yoon, Jeong-Me. 1990. Verb movement and the structure of IP in Korean. Language Research 26:343-371.

Yoon, Jeong-Me. 1996. Verbal coordination in Korean and English and the checking approach to verbal morphology. Linguistic Journal of Korea 21:1105-1135.

Yoon, Jong-Yurl. 1992. Functional categories in Korean clausal and nominal structure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427-464.

Yu-Cho, Young-Mee, and Peter Sells. 1995. A lexical account of inflectional suffixe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4:119-174.